

작성부서	(주)바이오니아 영업본부		
책임자	류태희 이사 (042-930-8687)	담당자	기획팀 박서영 (042-930-8504)
2017년 12월 13일(수)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일본에서 POC 분자진단 기술 발표

- 박한오 대표,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영국 대사관 초청으로 Antimicrobial resistance(AMR) 세미나 참석
- 박한오 대표, 항생제 내성을 줄일 수 있는 POCT(Point-of-care testing)을 주제로 발표
- 바이오니아, 영국 기반 공익단체인 Nesta와 개도국 협업 논의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이사가 영국 대사관 초청으로 국내 분자진단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2월 11일, 주일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된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항생제 내성) 세미나에 참석했다.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증가로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다 약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률, 의료비용 상승 등이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50년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람이 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MR 세미나는 신속하고 사용하기 쉬운 POCT(Point-of-care testing, 현장 진단)를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건강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국과 일본, 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일영국대사관과 영국 기반 공익단체인 Nesta가 주관했다.

세미나 주요 참석자는 Rosanna Peeling 교수(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등 영국과 일본의 학계 및 보건분야 관계자들로, 항생제 사용 관련 현안들과 항생제 내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는 특히 개발도상국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OCT와 키트에 대해 발표했고, Nesta와 함께 바이오니아 분자진단 장비를 통한 개발 협력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바이오니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경원 교수)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 개발(항생제 내성관련 진단 키트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esta는 1998년 영국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단체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전세계의 중요 이슈인 건강, 교육, 예술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국가 정부 및 글로벌 기업 등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중이다.